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정월 사역 소식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하는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만남과 활동으로 이루어지던 삶의 현상이 격리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동시에 도전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인사역자 중 한 분이 소천하셨고 세 분이 의료 항공기로 후송되었고 100여 명이 확진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지만 위기 관리팀을 운영하여 헌신적인 돌봄으로 많은 분들이 위기 상황에서 잘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섬기고 기도함으로 한 공동체임을 더 느끼기도 했습니다.

생활 전반이 변화된 환경에 처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할 때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고 좁은 생각과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셔서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기뿐만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구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의 사역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온 것에 감사드리며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현지 상황

작년 10월 대통령 선거 후 부정선거라는 시민들의 시위로 불안한 정국이었지만 결국 부정선거로 판결이 났고 대통령 사임과 재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80%가 넘는 표를 받아 안정적인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를 받았고 28일에 취임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도 이루어졌는데, 의원내각제 중심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실권이 강화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정부로 국정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기나긴 비대면 수업으로 학부모들의 고충과 학습 효과에 대한 대안으로 2월부터 전면적인 대면 수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보건부에서는 의료체제의 어려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겨울을 지나면서 코로나 19 감염 추이에 따른 대안도 마련하려고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1. 한국어 교실(드림 아카데미)



드림 아카데미는 지난 학기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해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온라인 상황이라서 주로 집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끝모를 상황에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이라 하지만 화상 수업이 아니라서 더욱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수업은 zoom을 통한 화상 수업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지난 12월에는 한 학기동안 참여한 수업, 과제물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한국과자와 문구류를 준비하여 학생들을 격려할 겸, 반별로 고려회관에서 달란트 시장을 열고

짧게나마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모두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제를 사용하였지만, 서로 만나는 기쁨과 시간이 무척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만의 시간이 허락되었지만 선생님들과도 만나고, 수업 친구들과의 만남과 작은 선물들을 통해 기쁨과 격려가 된 것 같습니다. 학교체제는 사실 오랜 구소련의 영향으로 교사들이 수업 분위기가 아주 엄격한데 비해, 저희 드림아카데미의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아주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더욱 넘치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상황이 좋아져서 자유롭게 만나고 고려회관에서 한국어 수업과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육부에서는 기나긴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수업 없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물 중심의 수업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학부모들의 고충도 감안하여 2021년 들어서면서 2월부터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좀 더 지켜보고 나서 대면수업 재개를 고려하려고 합니다.

저희 드림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이 꿈을 꾸고 좋은 관계를 배우고 인생 최고의 선물도 받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번역 & 출판 사역

드디어 지난 12월에 13권중 9번째 신약주석인 옥중서신이 출간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쇄소의 업무도 원활하지 못해서 인쇄, 출판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다행히 해가 바뀌기 전에 출간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로빈 교수는 여전히 본국인 호주로 돌아가서 후속 치료와 회복으로 건강이 많이 회복된 상황입니다. 오래 앉아있기 힘들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온라인 상으로 번역물들의 감수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수천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 상으로 번역과 감수 작업을 현지 사역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편집 디자인 작업에 동역하는 캐나다 사역자 역시 본국에서 지내면서 현지에 있는 저와 연결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4권의 책도 조금씩 감수와 편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년동안 진행된 이 거대한 작업이 이렇게 다양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끝이 보이는 상황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4. 소망의 집 사역

노숙인 센터인 '소망의 집'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알렉산드르 목사(사진 오른쪽 앞) 가족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었지만 잘 회복되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목사의 딸은 그동안 학교에 개설된 한국어 수업을 계속 들었는데,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한동대에 입학서류를 제출했는데 입학허가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바로 한국으로 가지 못하고, 9월 학기에 입학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허가인 공터에 위치한 지붕없는 창고가 이제는 지붕과 문, 그리고 침대와 난방 시설이 설치가 되어 총 4칸 중 3칸이 꽤 지낼만한 공간으로 변하여 40여명의 입소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칸별로 여자 숙소와 남자 숙소를 분리하였고, 이곳으로 들어가기 전의 두단계 공간에서 알콜중독이나 생활 습관을 어느정도 생활 규정에 동의하고 정비가 되면 다음 칸으로 옮겨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입소자들이 서로가 협력하여 함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세탁과 청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빈병이나 박스를 팔아 벌어들인 소유를 함께 나누어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시설이 없이 노숙하는 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들어 봉사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상황을 인정받아서 구청에서는 무허가 지역인 이곳의 창고시설을 기한없이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전만 해도 구청에서 철거 명령이 떨어질까 걱정도 했는데, 구청에서 알렉산드르 목사의 헌신적인 사역과 입소자들의 규칙적 생활로 변화되는 이들의 모습에 동의한 결과들이라 모두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5.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사역

탈라스 시골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이자 영어교사인 아이누라 자매를 통해 20여 명의 아이들이 영어를 매개로 한 교육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12월에는 영국과 미국의 명절 소개 영상 콘테스트를 열어 자연스럽게 성탄절의 의미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에 감사했고 연말에는 고아원도 방문해 아이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시골 지역은 1월부터 대면수업으로 전환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아이누라에게 지혜로운 교사가 되도록 특별히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시골 마을에 한 가정을 알게 되었는데 젊은 부부와 5명의 자녀들입니다. 아이들 엄마가 알콜 중독이어서 조부모가 아이들을 일부 돌보기도 하면서 돕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알콜 중독에서 벗어나야 해결되는 일이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6학년이고 둘째가 4학년인데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 둘째가 건강상 문제가 있어 비쉬켈에 와서 진단을 받았는데 가정 환경의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가정에 임하셔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의 계기가 되기를 위해 함께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헤브론, 김엘레나 드림